

지혜의
경영학
‘논어’
이야기

글 민경조 (코오롱 건설 사장)

‘논어’, 속 또 다른 세상
을 만나다

‘학이시습지(學而時習之)면 불역열호(不亦說乎)야?’ 로 시작되는 ‘논어(論語)’의 <학이편(學而篇)> 1장은 고등학생, 심지어 중학생이라도 그 구절을 알고 있을 정도로 유명하다. 누구나 인정하듯이 동양의 대표적인 고전(古典)으로 꼽히는 ‘논어’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한다. 물론 ‘논어’에 대해 대단한 식견을 가졌거나 동양철학을 전공한 전문가가 아니지만, ‘논어’를 좋아하는 애독자로서 말이다.

직원들은 나를 ‘논어 경영학’의 전도사라 부른다. 그 별칭이 싫지 않은 것이 ‘논어’에 대한 내 각별한 애정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나의 ‘논어 사랑’은 지난 8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코오롱건설 이사로 있을 때 중동 사태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연히 접하게 된 책 한 권이 바로 ‘논어’였다. 낡은 도덕 교과서 같던 고전이 내 인생관과 경영관의 주춧돌이 되어 원칙과 기본에 충실하고자 노력하는 지금의 나로 이끌어주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때 ‘논어’를 만나게 된 것은 참으로 대단한 ‘행운’이었다.

상과대학을 나온 나는 수없이 많은 경영이론을 접하고 경영학 서적을 읽었지만, ‘논어’만큼 마음으로 전해지는 감동은 없었다. 서구에서 만들어진 현대적 의미의 경영이론이나 인간과 사회에 대한 고찰(考察)은 낫설 수밖에 없음은 당연한 이치인지 모르겠지만 말이다.

아무리 읽어도 마음으로 감동이 전해지지 않는 서구화된 그들만의 경영서적 대신,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풀어낸 ‘동양의 경영학’을 뛰어넘어 ‘지혜의 인간학’으로 녹아 있는 ‘논어’를 최고의 경영서적으로 꼽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지금 우리 경제를 이끌어온 내로라하는 경영자들이 ‘논어’ 애독자라는 사실만 봐도 알 수 있다.

천여 번도 넘게 읽은 ‘논어’를 나는 지금도 즐겨 읽는다. 읽을 때마다 그 속에서 얻는 삶의 지혜는 늘 새롭게 와 닿곤 한다. 예순을 넘기고 다시 정독(精讀)하는 ‘논어’ 속에서 기업 경영보다 삶의 이치를 더 깊이 되새기는 나의 모습을 발견한다.

이 과정이 흡사 <위정편(爲政篇)>에 실린, 공자가 일생을 회고하며 자신의 학문 수양의 발전 과정에 대해 이야기한 구절처럼 해를 거듭할수록 ‘논어’의 참 의미를 알아가는 것이 아닐지...

나는 열다섯 살 때 배움에 뜻을 두었고
(吾十有五而志于學(오십유오이지우학)-志學)
서른 살 때에 뚜렷한 식견을 가지게 되었다.
(三十而立(삼십이립)-而立)

삼십이

마흔 살 때는 사리를 알게 되어 남의 말에 현혹되지 않았고
 (四十而不惑(사십이불혹)-不惑)
 스물살 때 학문에 몸을 바치는 것이 하늘이 준 사명임을 알았다.
 (五十而知天命(오십이지천명)-知天命)
 예순 살 때는 사물의 이치를 알게 되어 천명에 순종하였고
 (六十而耳順(육십이이순)-耳順)
 일흔 살이 되니 마음 내키는 대로 해도 법도를 넘어서지 않았다.
 (七十而從心所欲 不踰矩(칠십이종심소욕 불유구)-從心)



음미할 때마다 새롭고 깊은 맛을 주는 동양의 고전을 나 혼자만 향유하는 것이 저어하여 직원들과 공유하고 싶은 마음에 사장 취임 후 2000년부터 개인 홈페이지(<http://kec.kolon.co.kr/ceo>)에 경구(警句)를 올리기 시작했다. 우리 임직원들도 선조들의 은은하고 깊은 지혜를 들여다봄으로써 치열한 현실에서 잠시 벗어나 마음과 자세를 추스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시작한 것이 어느덧 7년째로 접어든다.

“기신정 불령이행(其身正 不令而行) 기신부정 수령부종(其身不正 雖令不從)” - 리더 자신이 올바르게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행해질 것이나, 그 자신이 올바르게 못하면 명령을 해도 따르지 않을 것이다.

홈페이지에 처음 올린 경구이자 '논어' 중 내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다. 이런 경영자가 되겠다는 초심(初心)으로 올린 것이 어느새 160여 건을 넘었다. 인터넷과 이메일을 통한 짧은 메시지에 불과하지만, 내게는 어쩌면 새로운 고전을 만들어내는 것만큼이나 소중한 의미를 지니기에 게을리 하지 않고자 애쓰고 있다.

시작 초기엔 '디지털 시대에 왜 공자 타령이냐'는 직원들의 타박(?)도 있었지만, 지금은 올려놓은 경구에 대해 직원들과 의견을 나눌 수 있을 정도로 작은 이야기 공간이 된 Min's Cafe를 손수 꾸리는 재미가 여간 쏠쏠한 게 아니다.

내가 올리는 고사와 경구의 대부분은 우리가 어려서부터 일상 속에서 익혀오는 동안 “그런 얘기가 있지” 하는 정도로 기억의 한구석에 쌓아둔 것들이다. 기억의 창고 속에서 먼지를 뒤집어쓰고 있던 이야기들을 상황에 따라 적절한 이야기로 불러내 밝은 곳에서 서로 어울려 놀게 하는 것은 내겐 그 자체로 여간 즐거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물론 나의 논어 전도가 지금 당장 직원들이 살아가는 데 큰 힘이나 지혜를 얻으리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어쩌다 절실하게 느껴지는 것이 있으면 한두 개 뽑아놓고 개인의 좌우명으로 삼는 것이 고작이겠지만,

어쩌면 그런 즐거움 속에서 은연중에 지혜의 틀을 얻는 것이 바로 동양적인 깨달음의 모습이 아닐까?

'학이시습지(學而時習之)면 불역열호(不亦說乎)야? 배우고 때에 맞춰 익히면 그것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라는 진리처럼... ☺